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 및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영주, 박주현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The Effect of Use Motives, Self-Control and Social Withdrawal on Smartphone Addiction

Young-Joo Lee, Joo-Hyun Park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약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 정보획득, 사회적 관계, 오락성, 여가시간활용 동기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기통제 특성은 조절성이 떨어질수록, 또한 충동성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용자들의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선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되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강압적인 제지보다는 청소년들의 놀이 활동을 우선 점검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충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구된다.

주제어 : 이용 동기, 자기통제력,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Abstract Despite the ever-increasing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and a variety of consequent problems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issue. It is time to prepare a set of countermeasures to protect them from the addiction. The central purpose of the current paper is to identify how use motives, self-control and social withdrawal affect their smartphone addiction. It was found (i) that the motives of information acquisition, social relationship, amusement and use of leisure time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smartphone addiction, (ii) that less self-control and greater impulsiveness result in greater addiction, and (iii) that social withdrawal of users also have significan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Su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base data for any attempt to develop countermeasures against addiction. It is desirable that we had better check the play activities of adolescents and develop self-control programs to help them alleviate impulsiveness than simply impose strict restrictions on the use of smartphones.

Key Words : Use of Motivations, Self-Control, Social Withdrawal, Smartphone, Smartphone Addiction

Received 30 May 2014, Revised 29 June 2014

Accepted 20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Young-Joo Lee(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Email: ijoo65@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대표적 디지털 매체인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는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3,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취학 전 아동에게까지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경향이 있어 연령대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

휴대전화와는 달리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상대방과 편리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게임중독, SNS중독, 사이버 따돌림, 음란·유해물 접촉 등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심각한 역기능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자들과 비슷하게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에 대다수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2]. 스마트폰은 이용주체의 능동성과 개입 활동성이 높아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의 차원과 정도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3].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가 중독과 관련된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4][5][6], 스마트폰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위축 심리적 특성은 상황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축이 지속되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 휴대전화중독 정도가 높은 경우 타인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고립적인 유형의 대인관계를 갖게 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통제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통제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충동성을 들며,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조절능력을 가진 반면, 통제력이 부족한 충동적인 사람은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동기(정보획득, 사회적 관계, 오락성, 멀티미디어 활용, 여가시간활용, 생활편의성)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자의 자기 통제력이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회적 위축이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동기(정보획득, 사회적 관계, 오락성, 멀티미디어 활용, 여가시간활용, 생활편의성)는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 사용자의 자기통제 심리적 특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회적 위축 심리적 특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응답자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4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24세 미만의 청소년 10대와 20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분포는 동등하게 참여하였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1:1 개별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15일 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먼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

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목적을 제시한 후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측정하였다. 그 후 스마트폰 중독관련 심리적 변수인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측정한 후 끝으로 스마트폰 이용관련 변수(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어플 수, 스마트폰 사용빈도 및 사용요금제)를 측정하였다.

3.2 측정도구

연구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 수 및 참고문헌을 아래의 <Table 1>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Table 1>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s item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item number	reference
use motivation	do any reason or purpose use smartphones	19 items	Seung-Yeob, Yu, & Jn- Hee, Kim(2013)
self - control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s can be controlled	7 items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Nam Hyun Mi (2001).
social withdrawal	regardless of the situation likes to be alone	4 items	Eggum et al.(2009).
smartphone addiction	despite of the negative results expected, impulsively use of smartphones	11 items	Hopper et al.(2007), & Kim Dong Il et al.(2012)

3.2.1 스마트폰 이용 동기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가로 정의하였다[8].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유승엽과 김진희가 개발하고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문항은 총 19개이다[8]. 이들 항목은 Likert형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 값이 정보획득=.794, 사회적 관계동기=.689, 오락성동기=.727, 멀티미디어 활용 동기=.708, 여가시간 활용 동기=.745, 생활편의성동기=.533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3.2.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Koppe는 자기통제력을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9]. 스마트폰 이용자의 자기통제(self-control)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가 개발한 척도를 남현미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총 7개이다[3][10]. 이들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해석은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향성을 알아보는 연구특성상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 값이 조절성은 .634, 충동성은 .556으로 나타났다.

3.2.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이란 상황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11]. 스마트폰 이용자의 사회적 위축(social - withdrawal)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Eggum 등이 개발한 척도이다[11]. 이들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해석은 선행연구들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향성을 알아보는 연구특성상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 값이 .797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3.2.4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12]. 본 연구에 사용된 중독척도는 김 동일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1개의 문항으로 이들 항목은 Likert형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3]. 척도의 해석은 선행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식인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 값이 .897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 18.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첫째,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구성개념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들에 대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위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 및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위축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향성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 연구결과

4.1 스마트폰 이용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과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용 동기의 하위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커뮤널리티 값 .40을 기준으로 총 19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14]. 요인분석결과,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정보획득, 사회적 관계, 오락성, 멀티미디어 활용, 여가시간활용, 생활편의성 동기로 나타났다.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로 확인되었다 ($F=12.179, p<.001$).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동기 중에서는 정보획득 동기($t=-3.384, p<.001$), 사회적 관계 동기($t=3.167, p<.01$), 오락성 동기($t=3.664, p<.001$), 여가시간활용 동기($t=4.445, p<.001$)가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동기와 생활편의성 동기는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Use of Motivation Factors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Use of Motiva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D	β	
information acquisition	-.216	.064	-.190	-3.384***
social relation	.155	.049	.162	3.167**
entertainment	.190	.052	.194	3.664***
multi media utilization	.027	.038	.036	.725 ns
use of leisure time	.196	.044	.239	4.445***
ease of life	.027	.049	.028	.556ns

$F=12.179, p<.001, R^2=.159$ * $p<.05, **p<.01, ***p<.001$

4.2 자기 통제력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사용자의 자기통제 심리적 특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 통제력에 대한 요인분석과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 통제력의 하위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커뮤널리티 값 .40을 기준으로 10개의 문항 중 총 7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인은 제 1요인은 조절성, 제2요인은 충동성으로 명명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8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5.793, p<.001$).

<Table 3>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조절성($t=-3.261, p<.01$), 충동성($t=4.339, p<.001$)은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elf-Control Factors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D	β	
Regulatory	-.189	.058	-.169	-3.261**
Impulsivity	-.210	.049	-.224	4.339***

$F=15.793, p<.001, R^2=.084, p<.05, **p<.01, ***p<.001$

4.3 사회적 위축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폰 사용자의 사회적 위축 심리적 특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에 대한 요인분석과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위축의 하위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커뮤널리티 값 .40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10.093, p<.01$).

<Table 4> Social withdrawal Factors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D	β	
social withdrawal	.136	.043	.158	3.177**

$F=10.093, p<.01, R^2=.025, p<.05, **p<.01, ***p<.001$

<Table 4>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회적 위축($t=3.177, p<.01$)은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15],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고 심지어 자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용자 중에는 이미 스스로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요에 의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중독성향이 스마트폰을 확산시켰다는 입장이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 사회적 위축이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획득동기, 사회적 관계동기, 오락성동기, 여가시간 활용 동기, 멀티미디어 활용 동기, 생활편의성 동기이다. 이용 동기 중 정보획득동기, 사회적 관계동기, 오락성동기, 여가시간활용 동기는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사용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는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 동기 중 필요에 의한 정보획득 동기가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나, 오락성동기, 사회적 관계동기, 여가시간활용 동기가 높은 경우 스마트폰 중독은 높아졌다. 이는 스마트폰의 습관적인 사용이 중독성향을 가져온다는 선행연구[1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획득을 위한 동기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자의 자기통제 심리적 특성은 조절성이 떨어질수록, 또한 충동성이 강할수록 중독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16]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쉽게 빠지지 않고 현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중독치료를 위해서는 자기 통제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주

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껴 우울하거나 외로움이 클수록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과다 사용하거나 중독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17].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필요에 의한 사용보다는 습관적으로 반복사용하고,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일수록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 속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장점의 이면에는 디지털매체의 확대에 의한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의 사회 문제화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개인의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 사회적 위축과 관련됨을 확인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선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나이를 10대와 20대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후 연구는 이용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즉, 학령 전 아동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 부족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독과 관련된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과 학교, 사회의 역할이 서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더불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 중독의 유해성을 부모가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의 기능이 오로지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함께 초기에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 특히, 오락성 동기와 사회적관계동기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마땅한 놀이 활동이 없다

는 것 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무작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청소년의 놀이문화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나 사교성을 위한 올바른 스마트폰의 사용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확산이 요구된다. 중독에 노출되면 경제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 학업상의 문제 등 다양한 폐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http://www.msip.go.kr>
- [2] Kwon Jae-Hwan, Research Trends in Internet Addic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5, No.3. pp.675-688, 2008.
- [3] Gottfredson, M, &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1990.
- [4] P. K. Smith, C. H. Hart,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Blackwell Handbook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 [5] I. Y. Yang, & S, Y. Lee, Exploring smartphone early adopters categories on the basis of motiva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5, No. 1, pp.109-139, 2011.
- [6] S, S, Han, & K, S, Oh, A Study on Cellular Phone Addiction Symptom Depen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ypes and Using Inclination - Focus on the Case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0, No. 4, pp. 371-405, 2006.
- [7] Young, K. S. Psychology of Computer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Vol.79, pp 899-902, 1996.
- [8] Seung-Yeub Yu, & Jn-Hee Kim, The Study on the ad avoidance factors affecting in Smartphones application display : focus on advertising attitudes,

- perceived intrusion, medium dosage and media use motiv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24, No. 2, pp. 125-14, 2013.
- [9] Kopp, C. B, The antecedents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2, pp. 199-214, 1982.
- [10] Nam Hyun Mi,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ir problem behavior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9. No. 7, 37-58, 2001.
- [11] Nam Hyun Mi N. D., & Eisenberg, N & Spinard, T. L, & Valient, C. & Edwards, A. & Kupfer, A. S. & Reiser, M. Predictors of Withdrawal: Possible Precursors of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logy*, Vol. 21 pp. 815-838, 2009.
- [12] Hopper, V. & Zhou, Y, Addictive, dependent, c ompulsive? *Proceedings of the 20ths Bled eConference eMergence: Merging and Emerging technologies, process, and Institutions*. Bled, Slovenia, June, pp. 4-6, 2006.
- [13] Kim Dong Il, Jung Yeo Ju, Lee Eun A, Kim Dong Min, Jo Young Mi, Development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Short Form(K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4, pp. 1703-1722, 2012.
- [14] Hair, J. F. J.,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 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 J.: Prentice Hall, 2006.
- [15] <http://www.nia.or.kr>
- [16] Jin- A Ryu,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 [17] Jang Sung Hwa, & Park Young Jin, The Relations among Teenagers' Mental Heal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 8, No. 3, pp. 195-226, 2010.

이 영 주(Lee, Young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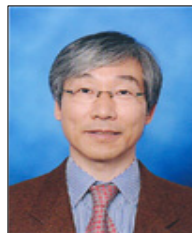


- 1988년 2월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1990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07년 2월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 관심분야 : 중독, 융합, 사회복지임상

· E-Mail: ijoo65@hanmail.net

박 주 현(Park, Joo-Hyun)



- 1984년 2월 :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 2004년 8월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8년 2월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융합, 사회복지임상

· E-Mail : jhp57@bu.ac.kr